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신석하 KDI거시금융연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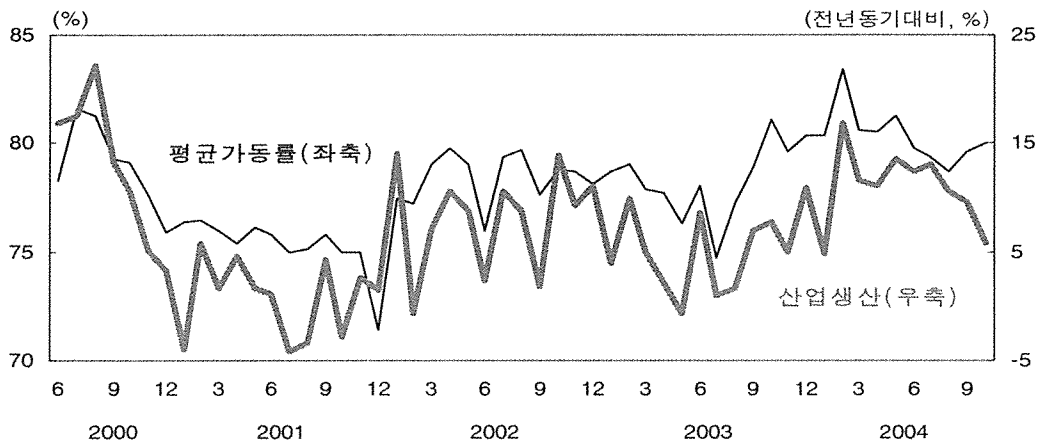
1. 전반적인 경기 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급증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하강하는 모습이다. 작년 이후 큰 폭으로 조정되어 온 민간소비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작년 하반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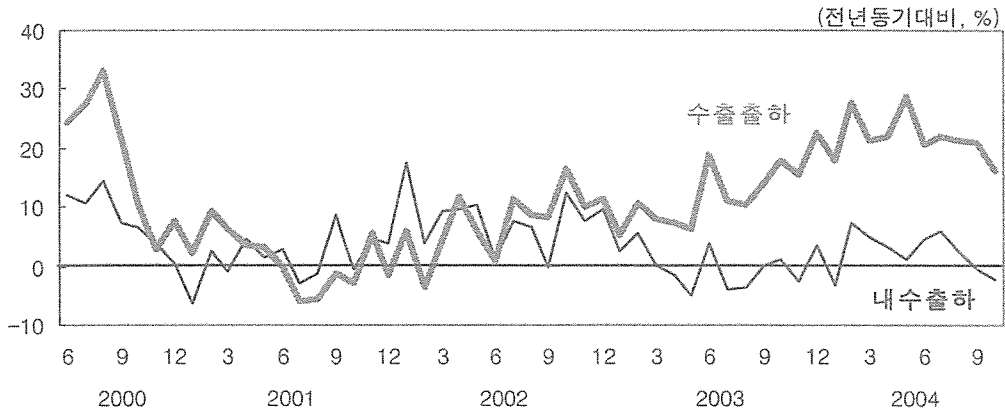
IT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을 견인하였던 수출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소비자 심리지수 등도 경제주체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생산이 10월중 전년동월대비 5.7% 증

산업생산 증가율 및 평균가동률 추이



내수출하 및 수출출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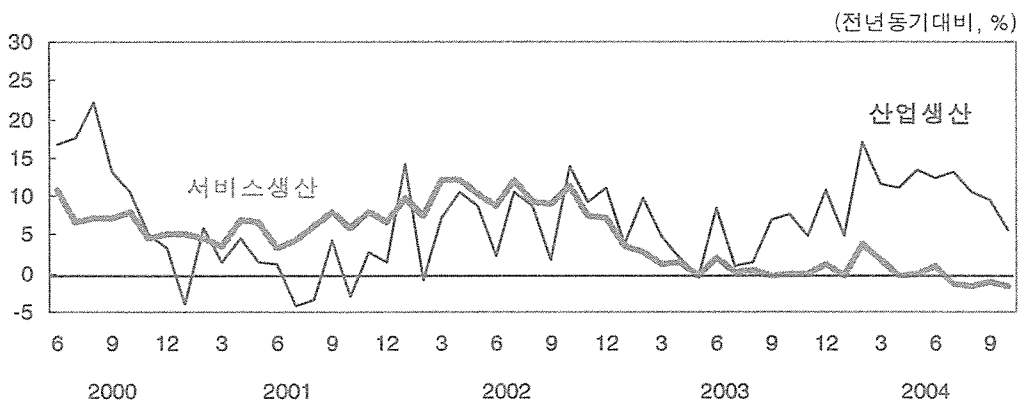
가하여 3/4분기(11.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의 증가세는 2/4분기 이후 완만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생산·재고의 순환은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고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경기 하강국면을 시사하고 있다.

서비스생산은 10월중 -1.7%의 감소를 기록하여 3/4분기(-1.4%)에 비해 감소 폭이 소폭 확대되는 등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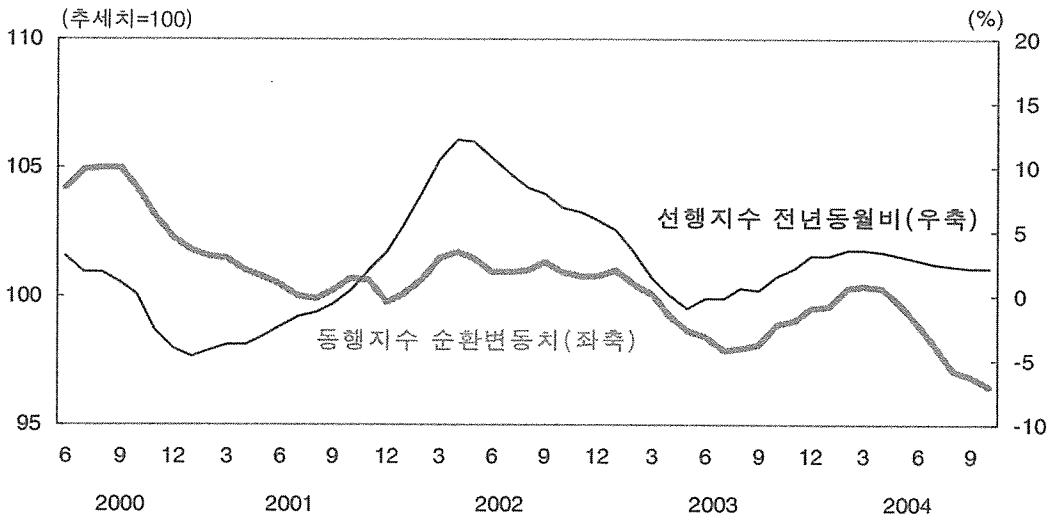
중 운수업,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주요부문에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여 경기하강 국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향후 경기하강속도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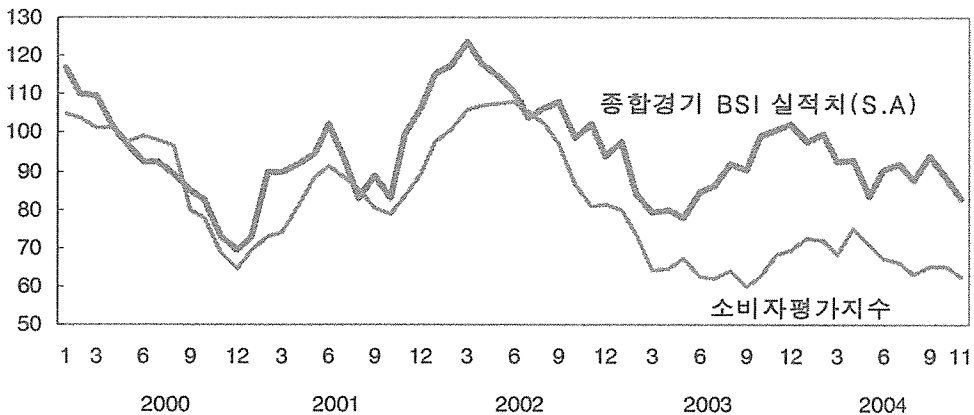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변화 추이



환율급락, 내수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제주체의 심리지표도 침체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월중 전경련의 계절조정 경기실사지수는 전월(88.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82.9를 기록하여 대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었음

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은행 BSI도 11월중 전월과 비슷한 73을 기록하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소비자평가지수도 11월중 62.8을 기록하여 전월보다 하락함으로써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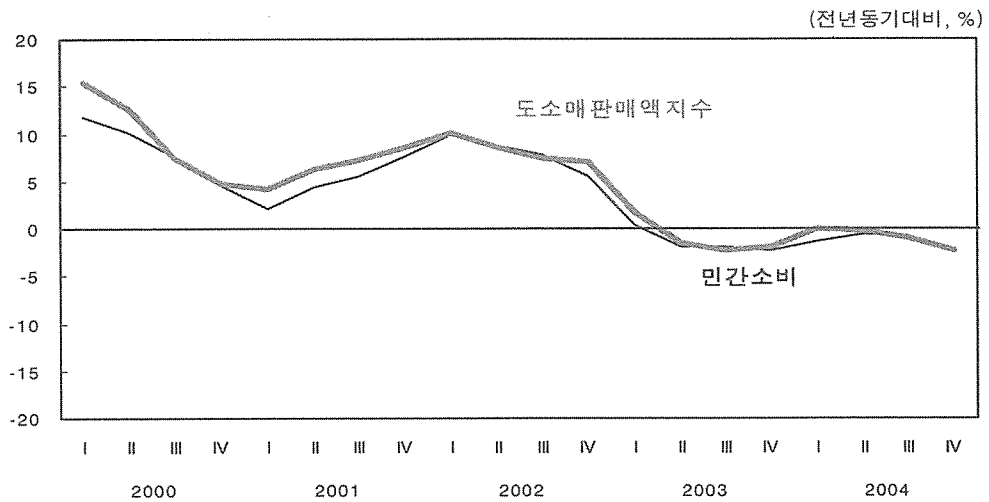
II. 부문별 동향 및 평가

작년 이후 경기부진의 주된 원인이었던 내수는 2003년 말과 금년 초에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미국 등 각국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 유가가 급등하였던 금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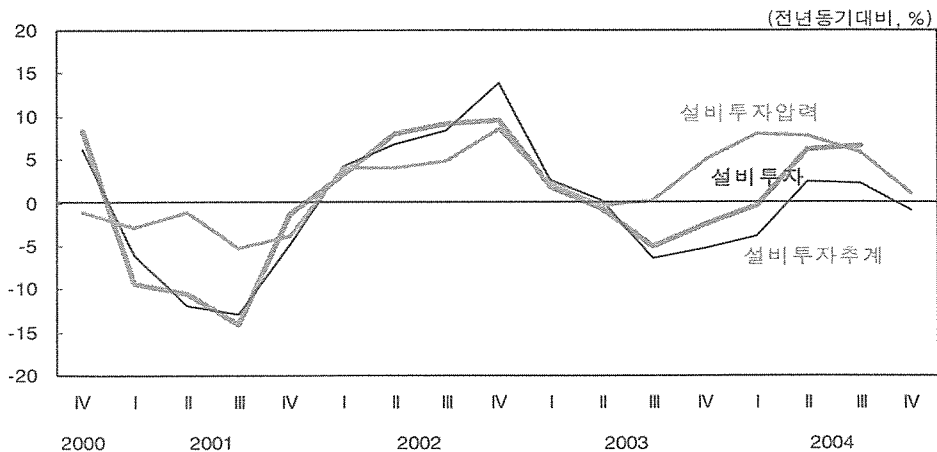
이후 오히려 다시 침체되고 있다. 한편 수출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민간소비는 3/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0.8%를 기록하여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10월중 도소매판매는 감소세가 다소 확대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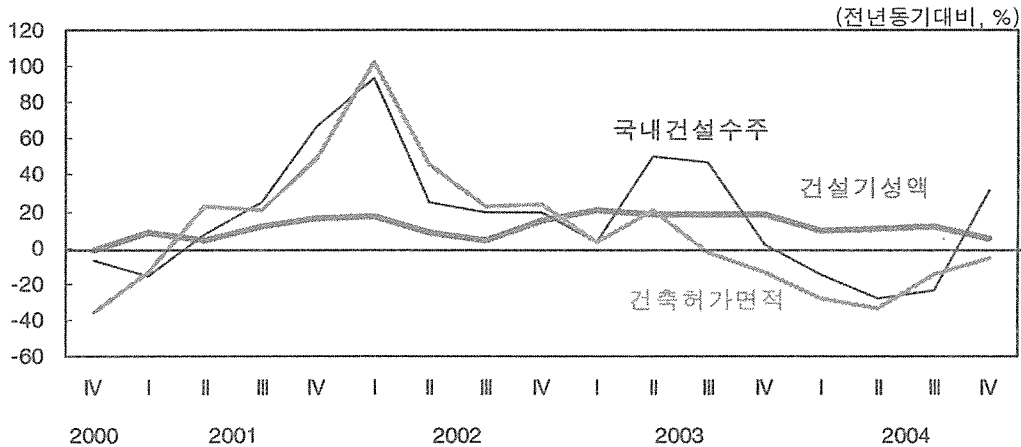
민간소비와 도소매판매지수 변화추이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추계 추이



건설기성액 및 선행지표의 추이



민간소비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10월중 도소매판매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의 감소 폭이 확대됨에 따라 3/4분기(-0.9%)에 비해 부진한 -2.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설비투자는 금년 3/4분기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최근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은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설비투자의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0월중 설비투자추계는 0.9% 감소하였으며, 기계류 내수출하도 0.2%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 설비투자 압력도 금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3/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금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선행지표들은 최근 감소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10월중 건설기성액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여 3/4분기(12.4%)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10월중 32.1% 증가하여 금년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건축허가면적은 10월중 전년동기대비 -5.4%를 기록하여 감소 폭이 3/4분기(-15.0%)에 비해 축소되었다.

작년이후 우리경제의 주된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은 금년 2/4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율이 완만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10~11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3/4분기(28.9%)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아직까지 무선통신기기 및 자동차 등 수출주력 품목들이 호조세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별로도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교역대상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3/4분기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모습이다.

한편 국내수출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출경기는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지수, %)

	비중 ¹⁾	2002	2003				2004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건설투자	1.00	5.3	7.6	7.3	7.9	7.4	4.1	3.8	1.5	-	-
(계절조정)				(0.7)	(1.7)	(2.6)	(-1.3)	(0.5)	(0.1)	-	-
건물건설	0.61	14.9	14.4	13.2	15.3	13.8	6.9	4.1	0.7	-	-
토목건설	0.39	-5.3	-1.5	-0.5	-2.4	0.1	-1.8	3.3	2.8	-	-
디플레이터	107.9	115.4	114.8	115.9	117.1	121.3	-	-	-	-	-
(상승률)	4.4	6.9	7.1	6.9	6.4	7.6	-	-	-	-	-
건설기성액 ²⁾	1.00	11.2	18.8	18.4	17.9	18.6	9.8	10.7	12.3	17.3	4.8
공공부문	0.35	-8.1	14.8	9.1	14.0	21.1	-0.8	5.5	7.7	14.5	-5.7
민간부문	0.62	24.5	22.2	24.9	21.4	18.9	16.3	13.3	14.3	18.6	10.5
국내건설수주 ²⁾	1.00	33.0	22.5	50.5	47.6	2.1	-14.2	-27.7	-24.1	-29.2	32.1
공공부문	0.24	-1.1	2.8	25.9	30.9	-10.7	21.9	-29.4	-11.1	-20.9	48.7
민간부문	0.72	59.2	31.6	52.4	57.0	17.2	-22.2	-27.5	-31.8	-36.3	19.6
건축허가면적	1.00	42.0	2.4	21.0	-2.0	-13.6	-27.7	-34.0	-15.0	3.0	-5.4
주거용	0.44	19.8	8.4	50.2	5.6	-12.1	-37.4	-42.1	-22.0	0.6	6.5
상업용	0.32	92.6	-8.1	-0.6	-10.5	-19.7	-30.2	-34.9	-31.9	-20.1	-29.6
공업용	0.10	13.5	-4.1	-14.4	-5.5	-13.7	-14.5	-22.6	29.8	32.7	-36.5
주택건설 ³⁾	-	666.5	585.4	212.3	92.3	171.6	63.6	90.0	98.4	33.0	49.1
(증가율)	-	25.8	-12.2	24.7	-33.4	920.7	-41.7	-57.6	6.5	35.1	54.3
미분양주택	-	24.9	38.3	24.7	24.6	38.3	40.1	50.1	52.7	52.7	58.9
아파트거래	-	29.7	-2.8	18.7	-11.1	2.3	-19.9	-36.7	-30.5	-36.3	-41.1

주: 1) 비중은 2003년 연간 기준임.

2) 건설기성액과 국내건설수주의 증가율은 명목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함.

3) 천호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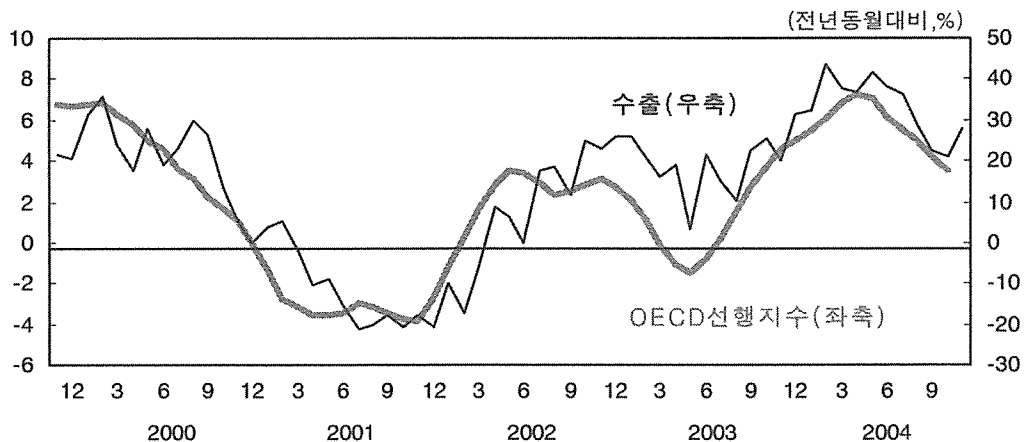
10월중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모두 2.0%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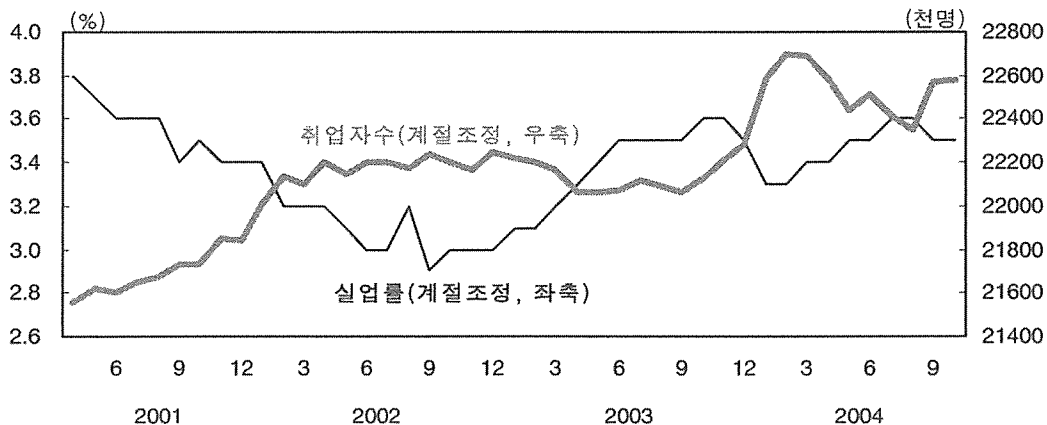
업자가 2.0% 증가한 데 비해 자영업주는 0.1% 증가에 그쳤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는 -8.2%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한편 명목임금은 3/4분기중 7.3% 상승하여 지난 1/4분기 이후 점차 상승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3/4분기의 임금상승이 주로 특별급여의 상승에 기인했던 것이 사실이나 임

OECD경기선행지수와 우리 수출



계절조정 실업률 및 계절조정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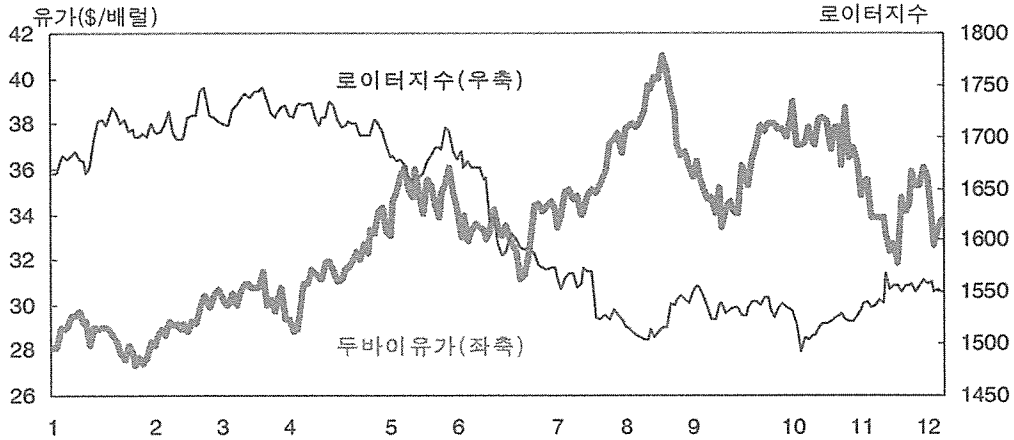
금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향후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농산물의 출하 확대에 힘입어 점차 하향 안정되고 있다. 9~10월중 보합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11월중에는 전월대비 -0.6%로 크게 하락하였다.

III. 대내외 경제여건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한 세계 경제는 2005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성장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3/4분기에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급등한 국제원유가격의 영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둔화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3/4분기에 전기대비 연율 3.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금년 2/4분기(3.3%)보다 소폭 높아졌다. 기업의 자본지출이 이익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지출도 7월 이후 확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2005년에 금리인상, 유가상승 및 감세정책의 효과 감소 등에 기인하여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4년의 성장률(4%대 초반)을 다소 하회하는 3%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3/4분기에 0.1%로 2/4분기(-0.1%)에 이어 부진을 지속하였다. 소비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수출의 둔화로 인해 생산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2005년에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004년(4%대 초반)에 비해 상당 폭

낮은 2%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과거의 낮은 성장률을 감안하면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로 평가된다.

유로경제도 3/4분기중 전기대비 0.3% 증가하여 2/4분기(0.5%)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고용부진으로 인하여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05년에는 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경제는 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생산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있으나, 투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물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2005년의 성장률은 2004년(9% 내외)보다 다소 낮은 8%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국제유가는 2005년에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지정학

적 불안요인의 점진적 해소에 기인하여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가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005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반도체 가격은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IT부문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2005년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빠르게 상승한 원화가는 향후 상승 속도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제통화가치의 조정, 특히 달러화 가치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당국은 내수부진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12월에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경기가 더욱 하강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IV. 향후 전망

우리경제는 2004년에 4%대 후반의 성장률을, 2005년에는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의 성장률은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낮은 4%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2005년의 경우 내수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의 하락 및 기술적 반락요인에 기인하여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4년보다 낮은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성장률이 2004년에 비해 하락하지만, 내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체감경기는 수출에 대부분 의존하여 성장하였던 2004년에 비해 오히

려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가계신용조정과 미래소득 및 고용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2005년에는 가계신용조정 등 일부 소비위축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소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용부진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수출호조세 및 작년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3%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5년에는 소비회복과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자본재 가격의 하락에 기인하여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2005년 상반기까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의 효과가 가시화될 하반기에는 3%대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금액)은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및 IT부문의 경기하락으로 인해 2005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며, 수입(금액) 증가율은 점진적인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기인하여 수출증가율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2004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소득·경상이전 수지의 적자도 내수회복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5년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2004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국제유가의 안정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에 기인하여 2004년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4~05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4년				2005년		
	상반 ^a	3/4 ^a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5.4	4.6	3.4	4.7	3.2	4.7	4.0
총소비	-0.1	-0.1	0.2	0.0	1.8	3.6	2.7
민간소비	-1.0	-0.8	-0.5	-0.8	1.3	3.6	2.5
총고정투자	3.3	3.0	1.0	2.6	3.5	5.9	4.8
설비투자	3.0	6.7	2.7	3.8	6.0	10.7	8.3
건설투자	3.9	1.5	0.5	2.3	1.9	3.5	2.8
총수출(물량)	27.1	17.6	11.3	20.2	7.2	10.0	8.6
상품수출	29.4	17.8	11.4	21.3	7.7	10.0	8.9
총수입(물량)	16.1	12.0	6.3	12.4	9.2	12.3	10.8
상품수입	17.3	12.3	6.2	13.0	10.2	13.2	11.7
경상수지	132	71	66	270	106	89	195
상품수지	190	97	97	385	184	163	347
수출(금액)	1,249	633	687	2,569	1,422	1,510	2,932
(증가율)	(37.1)	(29.0)	(19.4)	(30.0)	(13.8)	(14.4)	(14.1)
수입(금액)	1,059	535	590	2,184	1,238	1,347	2,585
(증가율)	(25.9)	(26.8)	(19.9)	(24.4)	(16.9)	(19.7)	(18.3)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58	-26	-31	-115	-78	-74	-152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3 (2.8)	4.3 (3.1)	3.4 (3.1)	3.6 (2.9)	3.0 (2.7)	2.7 (2.7)	2.9 (2.7)
실업률 (계절조정)	3.6 (3.5)	3.4 (3.6)	3.4 (3.5)	3.5	3.7 (3.6)	3.4 (3.6)	3.6

주: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

이상과 같은 전망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국제적 주택가격의 하락, 국제유가의 불안 재발, 내수회복의 지체 등의 불확실성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미국경

제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조정되는 경우 환율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요통화간 환율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

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서 아시아권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한편 경기회복 및 달러화 약세에 대응하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이에 따라 국제금리가 동반상승하는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왔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산유국의 여유 생산능력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불안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현재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하강국면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단기적·순환적 요인들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총저축률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총투자율이 정체됨에 따라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경제주체들이 국내의 활용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주체의 자신감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그 자체로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뿐 아니라 경제주체의 투자 및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촉매로 작용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교육·기술개발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경쟁이 보다 강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